

▶ 가족·아동

중국 조선족 기혼여성의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

김 경 신(전남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생활환경복지학과 교수)
이 선 미*(전남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생활환경복지학과 시간강사)

이 연구는 중국 조선족 기혼여성의 심리적 복지의 일반적 경향을 파악하고, 심리적 복지가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며,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함으로써, 조선족여성의 심리적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나아가 조선족가정의 건강성을 도모하려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 연구는 중국 동북 3성(길림성, 요녕성, 흑룡강성)에 거주하는 조선족 기혼여성 3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도구는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 옥선회·백희영(1999), 이애리아, 백태현(2001), Radloff(1977)의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등을 기초로 작성하였다. 심리적 복지는 생활만족도와 우울을 통해 측정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Cronbach' α 평균, 표준편차, ANOVA, Duncan test, Pearson's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조선족 기혼여성의 심리적 복지수준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매우 높았고,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 조선족으로서 뚜렷한 민족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부인의 의사결정권한이 많고 가족관계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선족 기혼여성의 심리적 복지는 연령, 가족형태, 생활수준에서 유의한 집단차를 나타냈다. 생활만족도의 경우 연령과 생활수준에서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60대와 20대의 생활만족도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고, 가족의 생활수준을 중하로 인식하는 여성이 다른 집단의 여성보다 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수준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은 연령, 가족형태로 나타났는데, 연령이 60대인 기혼여성의 우울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20대와 40대 여성의 우울수준이 다른 집단의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핵가족이나 확대가족보다 부부가족의 우울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국 조선족 기혼여성의 생활만족도는 생활수준, 가족가치관, 민족정체성, 가족관계 만족도 등이 유의한 영향 변인으로 나타났고, 우울은 연령, 자아존중감, 성역할태도, 가족관계만족도 등에서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따라서 조선족 기혼여성의 심리적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원만한 가족관계 형성을 통한 높은 수준의 가족관계 만족도가 요구된다. 또한 한국적 가족가치관을 적절히 수렴하여 유지해나가는 자세가 심리적복지 증진에 필요하며, 한편으로 성역할태도에 있어서는 근대적인 태도가 요구된다 하겠다.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생활수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나 자아존중감 향상 역시 요구되는 바이며, 강한 민족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조선족여성과의 공통체적인 노력과 교류와 협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